

강릉, 세라믹 신소재 투자 유치

2014년까지 419억원 투자 ... 천연 광물소재에 바이오·의료 확충

세라믹 신소재와 바이오, IT 특화 클러스터인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강원도와 강릉시의 전략적인 유치활동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투자기업을 속속 유치해 동해안 경제중심지로 빠르게 비상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8월11일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최명희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기업 10곳과 <강릉 과학산업단지 기업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릉 과학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신축하는 관련기업은 디에스테크노 등 세라믹 신소재를 중심으로 천연 광물소재와 바이오·의료 및 물류분야 등 10곳으로 산업용지 7만2096㎡에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41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622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최근 입주가 늘어나면서 세라믹 신소재산업 등 전국 최고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게 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현재 강릉 과학산업단지에는 35개 기업을 비롯해 벤처공장 34개, 창업보육센터 35개, 국내외 연구소 8개, 분야별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15개 및 기타 1개 등 총 128개 기업이나 시설 등에 8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앞으로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 외국인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스포츠·헬스케어·녹색산업 유치 등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새로운 비전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도시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강릉은 마그네슘(Mg) 제련공장 착공, 초경량 금속 소재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유치와 함께 지속적인 기업유치는 관광·레저 및 첨단 과학산업이 복합된 인구 30만명 자족형 명품 국제도시로 변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1>